

2024년 1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2분기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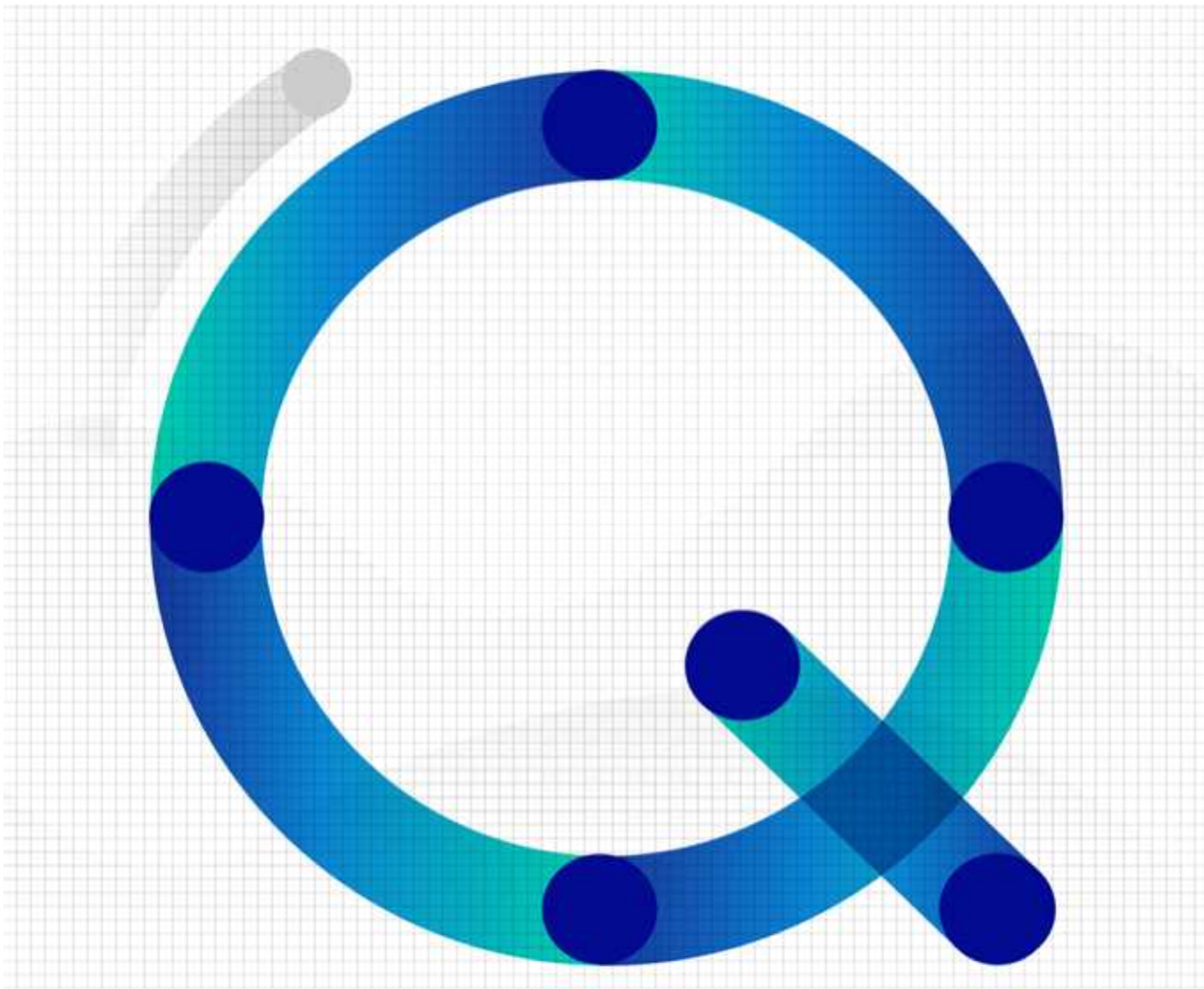
I. 2024년 1분기 수출실적 평가

II. 2024년 2분기 수출 전망

III. 수출기업 애로사항

작성

수석연구원 김윤지 (02-6252-3607)





<요 약>

I. 2024년 1분기 수출실적 평가

2024년 1분기 수출 전년동기 대비 8.3% 증가, 전기 대비로는 2.6% 감소

- 2024년 1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(1,512억 달러) 대비 8.3% 증가, 전분기(1,681억 달러) 대비로는 2.6% 감소한 1,637억 달러
- 반도체 · 선박 수출 등이 개선되면서 전분기에 이어 전년동기 대비 증가세 지속
- 월간 기준으로는 2023년 10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으며, 무역수지도 2023년 6월 이후 10개월 연속 흑자 기록
- 품목별로는 반도체, 선박, 디스플레이 등 15대 주력품목 가운데 10개 품목이 증가했으며, 지역별로는 미국, 중국, 아세안 등이 증가

2024년 1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1p 상승한 92

- 전기 대비 수출입물가가 상승하면서 수출채산성은 하락했지만 수출단가 상승 영향으로 전체 수출업황 평가는 상승

수출업황 평가지수 추이

| 구분 | '22 | | | | '23 | | | | '24 |
|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| 1/4 | 2/4 | 3/4 | 4/4 | 1/4 | 2/4 | 3/4 | 4/4 | 1/4 |
| 수출업황평가지수 | 93 | 94 | 90 | 91 | 88 | 92 | 89 | 91 | 92 |
| 수출채산성평가지수 | 90 | 94 | 92 | 91 | 88 | 92 | 89 | 93 | 90 |
| 수출단가평가지수 | 125 | 119 | 115 | 105 | 105 | 100 | 103 | 100 | 106 |
| 생산원가평가지수 | 144 | 135 | 129 | 117 | 114 | 108 | 113 | 108 | 115 |
| 수출물량평가지수 | 97 | 97 | 89 | 91 | 83 | 93 | 88 | 91 | 89 |
| 자금사정평가지수 | 93 | 94 | 93 | 96 | 94 | 97 | 95 | 95 | 95 |

- 수출업황 평가는 전기전자, 석유화학, 신재생에너지, 선박 등은 상승, 플랜트/해건, 기계류 등은 하락
- 수출채산성 평가는 전기전자, 선박, 섬유류 등은 상승, 플랜트/해건, 문화콘텐츠, 석유화학, 철강 등은 하락
- 수출물량 평가는 전기전자, 섬유류만 상승, 플랜트/해건, 석유화학, 기계류, 자동차 등은 하락

산업별·기업규모별 수출업황 평가지수

| 구분 | 전기전자 | 기계류 | 철강/금속 | 석유화학 | 자동차 | 섬유 | 플랜트/해건 | 신재생에너지 | 선박 | 문화콘텐츠 | 해운 | 대기업 | 중소기업 |
|--------|------|-----|-------|------|-----|----|--------|--------|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-|
| '23.4Q | 91 | 90 | 90 | 91 | 94 | 76 | 96 | 90 | 97 | 95 | 100 | 96 | 90 |
| '24.1Q | 94 | 88 | 91 | 92 | 94 | 87 | 87 | 100 | 103 | 90 | 104 | 105 | 90 |



II. 2024년 2분기 수출 전망

2분기 수출선행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1.4p, 전기대비 1.7p 하락

- '24년 2분기 수출선행지수는 120.9로 전년동기 대비 1.4p, 전기 대비 1.7p 하락
- '23년 4분기 상승 전환했던 수출선행지수가 다시 2분기 연속 전기대비 하락하는 등 수출 경기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
- 미국 경기는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·유럽 등은 개선세가 강하지 않고, 중동 리스크 등 지정학적 불안까지 고조되면서 지역별 경기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

수출 선행지수 추이

| 구분 | 2022 | | | | 2023 | | | | 2024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
| | 1/4 | 2/4 | 3/4 | 4/4 | 1/4 | 2/4 | 3/4 | 4/4 | 1/4 | 2/4 |
| 수출선행지수 | 124.3 | 126.3 | 129.1 | 128.8 | 123.8 | 122.3 | 122.5 | 123.8 | 122.6 | 120.9 |
| 전년동기대비 증감(p) | 16.91 | 14.79 | 10.78 | 5.75 | △0.46 | △3.90 | △6.55 | △4.98 | △1.15 | △1.40 |
| 전기대비 증감(p) | 1.26 | 1.99 | 2.85 | △0.34 | △4.96 | △1.45 | 0.20 | 1.24 | △1.14 | △1.70 |

미국은 개선세 지속·중국은 약한 회복세, 불확실성 증대로 전기 대비 상승세는 약화

- 수출대상국 경기 : 독일·일본은 경기둔화, 미국·영국은 개선세 지속, 중국은 미약한 회복 흐름을 유지하는 등 지역별 경기 차별화 심화, 전체 경기지수는 상승세가 약화돼 전기 대비 상승폭 축소
 - ※ 수출대상국 경기지수 증감률(% , 전년동기대비) : 3.4('23.2Q)→4.3(3Q)→4.5(4Q)→**3.4('24.1Q)**
-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는 전분기 대비 8.7% 상승한 51.0 기록, 월별로도 기준치 50을 상회해 미국 제조업 경기는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
 - ※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(분기) : 44.60('23.1Q)→44.63(2Q)→47.8(3Q)→47.0(4Q)→**51.0('24.1Q)**
- 수출용 수입액 지수는 수출 물량은 개선됐으나 1분기 유가가 안정적이었던 영향으로 전기 대비 7.5%, 전년동기 대비 14.8% 하락
- 가격 경쟁력 : 1분기 평균 환율은 전 분기(1,321원)보다 **0.5% 상승**한 달러당 **1,328원 기록**했으나 4월에는 중동발 분쟁으로 장중 1,400원까지 상승, 가격 경쟁력은 높은 상황이나 원자재 수입가격 상승 압력도 높아짐
- 미국 경기 호조로 금리인하 기대감이 떨어지고 이란-이스라엘 분쟁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 선호가 높아져 원/달러 환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
 - ※ 원/달러환율(분기평균) : 1,276('23.1Q)→1,315(2Q)→1,311(3Q)→1,321(4Q)→**1,328('24.1Q)**
 - ※ 원/달러환율(월 평균) : 1,351('23.10)→ 1,310(11)→ 1,304(12)→**1,324('24.1)→ 1,332(2)→ 1,331(3)**



- **수출물가** : 반도체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, 유가도 점진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2분기 수출 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상승세로 전환될 전망

※ 수출물가 (2015=100, 달러기준) : 102.8('23.1Q)→99.6(2Q)→100.6(3Q)→100.2(4Q)→**102.1('24.1Q)**

- **D램**은 AI 확산 등으로 수요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, 전세계 D램 반도체의 15%를 공급하는 대만의 지진 사태로 공급 감소 가능성도 있어 가격 상승 폭은 확대될 전망

※ D램 가격 전망(\$, DDR4_8Gb 평균판매가격, Omdia) : 1.47('23.3Q)→1.55(4Q)→1.60('24.1Q)→**1.66P(2Q)**

- **유가**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, OPEC+ 석유 감산 연장 등으로 80달러 중후반대 유지 전망

※ 유가(Dubai, \$/bl, 기간평균) : 89.8('23.10)→83.6(11)→77.3(12)→**78.9('24.1)→80.9(2)→84.2(3)→89.6(4.19)**

- **주요 산업** : 반도체는 AI 중심 투자 확대로 물량·단가 상승이 이어지고, 건조된 선박 물량 인도 본격화로 조선 수출 호조세도 이어지면서 주요 산업 수출 회복세는 지속될 전망

- **반도체**는 위축되었던 낸드플래시 시장이 AI 수요 증가에 힘입어 회복되고, HBM(고대역폭 메모리), DDR5 등 고부가가치 D램 제품 수요도 증가하는 등 수출 단가, 물량 상승세가 이어져 수출 호조세는 2분기에도 지속될 전망

2024년 2분기 수출액, 전년동기 대비 8~9% 증가 전망

- 지역별 경기차별화로 수출선행지수는 소폭 하락했으나, 우리 수출 비중이 큰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국제 유가 상승으로 수출단가 상승이 이어져 **2024년 2분기 수출액은** 전년동기 대비 **8~9% 증가** 전망

- 수출액은 1,700억 달러 내외 수준으로 전기 대비 증가

※ 분기별 수출액 (억달러) : 1,512('23.1Q)→ **1,558(2Q)**→ 1,571(3Q)→ 1,682(4Q)→ 1,637('24.1Q)

※ 분기별 수출액 증감율 (%) 전년동기대비) : △12.8('23.1Q)→△**120(2Q)**→△9.7(3Q)→ 5.8(4Q)→ 8.3('24.1Q)

- 다만, 중동발 리스크, 중국 경기 회복 부진 등이 지속되면서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글로벌 경기 위축이 확산될 경우 수출 증가 폭은 축소 가능

Ⅲ. 수출기업 애로사항

‘원재료 가격 상승’(38.4%), ‘원화환율 불안정’ · ‘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 공세’(30.0%) 응답 최대

- 최근 원유를 비롯해 리튬, 구리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**‘원재료 가격 상승’(29.4%→38.4%)이 전기 대비 9.0%p 상승**하며 최대 비중 차지
-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**‘원화환율 불안정’(42.0%→30.0%)** 응답도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며, **‘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 공세’(30.9%→30.0%)**도 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



I. 2024년 1분기 수출실적 평가

1. 수출실적 및 관련지표

2024년 1분기 수출 전년동기 대비 8.3% 증가, 전기 대비로는 2.6% 감소

- 2024년 1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(1,512억 달러) 대비 8.3% 증가, 전분기(1,681억 달러) 대비로는 2.6% 감소한 **1,637억 달러**
- 반도체 · 선박 수출 등이 개선되면서 전분기에 이어 전년동기 대비 증가세 지속
- 월간 기준으로는 2023년 10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으며, 무역수지도 2023년 6월 이후 10개월 연속 흑자 기록
- 품목별로는 반도체, 선박, 디스플레이 등 15대 주력품목 가운데 10개 품목이 증가했으며, 지역별로는 미국, 중국, 아세안 등이 증가

수출실적 관련지표 추이

(단위 : 억 달러, %, 전년동기 대비)

| 구분 | 2022 | | | | 2023 | | | | 2024 |
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|
| | 1/4 | 2/4 | 3/4 | 4/4 | 1/4 | 2/4 | 3/4 | 4/4 | 1/4 |
| 수출액 | 1,734 | 1,771 | 1,740 | 1,590 | 1,512 | 1,558 | 1,571 | 1,681 | 1,637 |
| 증감률(%) | 18.4 | 13.0 | 5.8 | △10.0 | △12.8 | △12.0 | △9.7 | 5.7 | 8.3 |
| 수출물가지수 | 112.6 | 117.1 | 109.4 | 104.0 | 102.8 | 99.6 | 100.6 | 100.2 | 102.1 |
| 증감률(%) | 12.8 | 9.5 | △0.9 | △6.0 | △8.7 | △15.0 | △8.0 | △3.6 | △0.7 |
| 수입물가지수 | 131.5 | 136.7 | 128.0 | 122.2 | 121.7 | 115.8 | 116.5 | 116.3 | 116.5 |
| 증감률(%) | 22.4 | 20.3 | 7.5 | △1.0 | △7.4 | △15.3 | △9.0 | △4.8 | △4.3 |
| 수출물량지수 | 124.3 | 121.1 | 124.8 | 119.8 | 118.2 | 122.5 | 123.7 | 129.6 | 123.8* |
| 증감률(%) | 6.8 | 2.2 | 4.1 | △5.4 | △5.0 | 1.1 | △0.9 | 8.2 | 4.8 |

자료: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은행

주: 수출입물가지수(달러화 기준) 및 수출물량지수는 2015=100

* 2021년 1분기 수출물량지수는 1~2월 평균



반도체 업황 개선, 선박 수주 물량 인도 본격화 등으로 수출 호조세 지속

- **반도체(+50.7%)**는 PC, 모바일 재고 감소 속에 AI서버 투자 확대 등으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출 물량 증가세 지속, 낸드플래시 및 D램 가격도 상승하면서 수출액 증가 폭 확대
※ D램가격(\$, DDR4_8Gb, 평균판매가격) : 1.82('23.1Q)→1.55(2Q)→1.47(3Q)→1.55(4Q)→**1.60('24.1Q)**
- **석유화학(△0.4%)**은 수출 물량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'23년말 하락했던 유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수출 단가가 하락해 수출액은 소폭 감소
※ 유가(Dubai, \$/bl, 기간평균) : 89.8('23.10)→83.6(11)→77.3(12)→78.9('24.1)→80.9(2)→84.2(3)
- **일반기계(+0.9%)**는 북미 등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EU, 중국 건설경기 둔화 영향으로 수출 증가폭은 축소
- **자동차(+2.7%)**는 수출 호조세는 유지되고 있으나 전년 동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영향으로 수출 증가폭 축소
- **선박(+64.3%)**은 21년도 수주되었던 고가의 컨테이너선·LNG선 물량이 순차적으로 인도되면서 수출 증가폭 확대
※ 선박 수주액(조원) : 23.9('18)→ 23.5('19)→ 19.0('20)→ **40.5('21)**→ 46.9('22) → 40.3('23)
- **이차전지(△22.3%)**는 글로벌 기업 배터리 재고 조정, 광물 가격 하락으로 인한 수출 단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출 감소로 전환

주요 품목별 수출 증감률

(단위 : %, 전년동기 대비)

| 구분 | '22. 1/4 | 2/4 | 3/4 | 4/4 | '23. 1/4 | 2/4 | 3/4 | 4/4 | '24. 1/4 | 1월 | 2월 | 3월 |
|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반도체 | 29.0 | 13.6 | △3.9 | △25.8 | △40.0 | △34.8 | △22.6 | 10.4 | 50.7 | 56.2 | 66.7 | 35.7 |
| 석유화학 | 27.6 | 6.9 | △9.7 | △25.1 | △22.4 | △24.3 | △13.8 | 2.2 | △0.4 | 4.4 | △3.1 | △2.2 |
| 일반기계 | 11.5 | 0.3 | 0.2 | △3.1 | △2.0 | 5.5 | 6.7 | 8.5 | 0.9 | 14.2 | 1.1 | △10.0 |
| 자동차 | △0.4 | 6.8 | 31.2 | 29.0 | 43.9 | 48.9 | 17.1 | 19.6 | 2.7 | 24.7 | △7.8 | △5.0 |
| 석유제품 | 91.1 | 90.9 | 78.3 | 18.0 | △0.5 | △34.8 | △27.4 | 1.5 | 3.8 | 13.3 | △4.1 | 3.1 |
| 선박류 | △45.3 | △6.7 | 6.3 | △22.5 | 0.6 | 21.6 | △5.7 | 58.7 | 64.3 | 76.0 | 27.7 | 102.1 |
| 이차전지 | 11.6 | 8.1 | 25.5 | 15.1 | 10.8 | 2.2 | △17.9 | 1.7 | △22.3 | △25.4 | △18.7 | △23.0 |

자료: 관세청 및 산업통상자원부



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중국 수출 증가 전환, 인프라 투자 확대로 미국 수출도 증가세 지속

- **중국 수출(+4.4%)**은 건설 경기 둔화로 일반기계 수출 등은 부진하나 반도체, 디스플레이 수출 등이 개선되면서 수출 증가로 전환
- **미국(+15.4%)**은 자동차 수출 호조 및 인프라 투자 확대가 지속되면서 수출 증가세도 유지
- **아세안(+1.9%)**은 건설기계 시장 수요 부진 등으로 철강 수출 등은 감소했으나 반도체 수출이 개선되면서 수출 증가세 유지
- **EU(△3.7%)**는 제조업 생산 둔화로 일반기계 수출이 줄어들고, 독일 신차 출시 영향으로 자동차 수출도 감소하면서 수출 감소세 지속
- **인도(△0.1%)**는 인도 내 애플 및 삼성 스마트폰 생산 확대 영향으로 모바일 반도체 수출은 증가했으나, 글로벌 가격 경쟁 심화로 철강 수출 등이 감소하면서 수출 감소로 전환

주요 지역별 수출 증감률

(단위 : %, 전년동기 대비)

| 구분 | '22. 1/4 | 2/4 | 3/4 | 4/4 | '23 1/4 | 2/4 | 3/4 | 4/4 | '24. 1/4 | 1월 | 2월 | 3월 |
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
| 중국 | 15.5 | △1.0 | △4.9 | △22.9 | △29.7 | △22.2 | △20.8 | △4.4 | 4.4 | 16.1 | △2.4 | 0.4 |
| 미국 | 13.9 | 22.2 | 15.2 | 6.9 | 3.4 | △2.6 | 0.9 | 20.9 | 15.4 | 27.1 | 9.1 | 11.6 |
| 일본 | 15.1 | 8.9 | 0.0 | △14.0 | △10.4 | △11.3 | △5.0 | 8.2 | △0.4 | 10.8 | 1.0 | △12.1 |
| 아세안 | 38.4 | 26.1 | 15.4 | △12.5 | △19.3 | △22.0 | △14.1 | 8.1 | 1.9 | 6.0 | 1.4 | △1.3 |
| EU(27) | 5.9 | 10.2 | 7.2 | 5.0 | 3.6 | 7.7 | △0.3 | △9.7 | △3.7 | 5.2 | △8.4 | △6.7 |
| 중동 | 24.4 | 16.2 | 10.7 | 1.6 | 15.5 | 14.0 | 0.5 | 0.0 | △6.1 | 13.8 | △13.3 | △15.5 |
| 인도 | 11.0 | 33.0 | 39.8 | 1.9 | 4.7 | △12.1 | △16.6 | 8.9 | △0.1 | 5.8 | △1.7 | △4.0 |

자료: 관세청 및 산업통상자원부

반도체 가격 상승 영향으로 수출입물가 전기 대비 상승, 전년동기 대비 하락폭은 축소

- 1분기 수출물가(달러화 기준)는 반도체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기 대비 **1.8% 상승**, 전년 동기 대비로는 **0.7% 하락**했으나 하락폭 축소
- 반도체 수출물가는 전기 대비 17.2%, 전년동기 대비 12.3% 상승하면서 분기 기준으로는 '22년 1분기 이후 8분기만에 전년동기 대비 상승 전환
- 수입물가(달러화 기준)는 유가가 2월까지 낮은 수준을 유지한 영향으로 전년동기 대비 **4.3% 하락**했으나, 분기 내 유가의 점진적 상승 및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전기 대비로는 **0.2% 상승**

※ 유가(Dubai, \$/bl, 기간평균) : 89.8('23.10)→83.6(11)→77.3(12)→**78.9('24.1)→80.9(2)→84.2(3)**



2.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

가. 전체 수출업황

2024년 1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1p 상승

- 2024년 1분기 수출업황 평가지수는 전기 대비 1p, 전년동기 대비 4p 상승한 92
- 전기 대비 수출입물가가 상승하면서 수출채산성은 하락했지만 수출단가 상승 영향으로 전체 수출업황 평가는 상승
- (수출채산성 평가지수) 수출 물가 상승으로 수출단가 평가(전기 대비 6p ↑)가 상승했지만, 수입 물가 상승으로 생산원가 평가(전기 대비 7p ↑)가 더 크게 상승해, 종합적인 수출채산성 평가는 전기 대비 3p 하락한 90
- (수출물량 평가지수) 최근 수출 물량 개선은 반도체 등 전기전자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어 그 외 분야로는 개선세가 뚜렷하지 않아 전기 대비 2p 하락한 89 기록
- (자금사정 평가지수) 전기와 동일 수준인 95 기록

수출업황 평가지수 추이

| 구분 | '22 | | | | '23 | | | | '24 |
|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
| | 1/4 | 2/4 | 3/4 | 4/4 | 1/4 | 2/4 | 3/4 | 4/4 | 1/4 |
| 수출업황 평가지수 | 93 | 94 | 90 | 91 | 88 | 92 | 89 | 91 | 92 |
| 수출채산성 평가지수 | 90 | 94 | 92 | 91 | 88 | 92 | 89 | 93 | 90 |
| 수출단가 평가지수 | 125 | 119 | 115 | 105 | 105 | 100 | 103 | 100 | 106 |
| 생산원가 평가지수 | 144 | 135 | 129 | 117 | 114 | 108 | 113 | 108 | 115 |
| 수출물량 평가지수 | 97 | 97 | 89 | 91 | 83 | 93 | 88 | 91 | 89 |
| 자금사정 평가지수 | 93 | 94 | 93 | 96 | 94 | 97 | 95 | 95 | 95 |

주: <부록> 2.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 및 개요 참고

나. 규모별 · 산업별 · 수출 지역별 수출업황

기업규모별 : 대기업(96→105), 중소기업(90→90)으로 대기업은 상승, 중소기업은 동일수준

- 대기업은 수출업황 및 수출채산성, 자금사정 모두 전기 대비 상승했으며, 중소기업은 수출업황은 동일 수준, 수출채산성은 하락



산업별 : 전기전자(91→94), 석유화학(91→92), 신재생에너지(90→100), 선박(97→103) 등은 업황 평가 상승, 해외건설/플랜트(96→87), 기계류(90→88) 등은 하락

- 수출채산성 평가는 전기전자(92→95), 선박(98→102), 섬유류(76→86) 등은 상승, 해건/플랜트(90→75), 문화콘텐츠(95→85), 석유화학(96→90), 철강/비철금속(95→89) 등은 하락
- 수출물량 평가는 전기전자(89→96), 섬유류(72→79)만 상승, 해건/플랜트(102→81), 석유화학(96→90), 기계류(86→84), 자동차(96→93) 등 대부분 산업에서 하락

수출지역별 : 북미(89→96), 일본(89→96)은 업황 평가 상승, 중국(89→88), 유로존(94→89)은 하락

- 수출채산성 평가는 북미(91→94), 중국(89→93), 일본(91→95) 등은 상승, 유로존(95→88), 동남아(96→81)는 하락
- 수출물량 평가는 일본(90→95), 북미(89→91)는 상승, 동남아(93→81), 중국(90→89)은 하락

기업규모별 · 산업별 · 지역별 수출업황 평가지수

| 구분 | | 수출업황 지수 | | 수출채산성 지수 | | 수출물량 지수 | |
|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
| | | '23. 4/4 | '24. 1/4 | '23. 4/4 | '24. 1/4 | '23. 4/4 | '24. 1/4 |
| 전 체 | | 91 | 92 | 93 | 90 | 91 | 89 |
| 규모 | 대 기 업 | 96 | 105 | 96 | 102 | 100 | 97 |
| | 중 소 기 업 | 90 | 90 | 93 | 89 | 90 | 88 |
| | 전 기 전 자 | 91 | 94 | 92 | 95 | 89 | 96 |
| 산업 | 기 계 류 | 90 | 88 | 90 | 87 | 86 | 84 |
| | 철 강 / 비 철 금 속 | 90 | 91 | 95 | 89 | 89 | 88 |
| | 석 유 화 학 | 91 | 92 | 96 | 90 | 96 | 90 |
| | 자 동 차 | 94 | 94 | 94 | 94 | 96 | 93 |
| | 섬 유 류 | 76 | 87 | 76 | 86 | 72 | 79 |
| | 플 랜 트 / 해 외 건 설 | 96 | 87 | 100 | 85 | 102 | 81 |
| | 신 재 생 에 너 지 | 90 | 100 | 95 | 86 | 100 | 93 |
| | 선 박 | 97 | 103 | 98 | 102 | 102 | 100 |
| | 문 화 콘 텐 츠 | 95 | 90 | 95 | 85 | 90 | 85 |
| | 해 운 | 100 | 104 | 100 | 100 | 109 | 100 |
| 수출 지역 | 북 미 | 89 | 96 | 91 | 94 | 89 | 91 |
| | 중 국 | 89 | 88 | 89 | 93 | 90 | 89 |
| | 일 본 | 89 | 96 | 91 | 95 | 90 | 95 |
| | 유 로 존 | 94 | 89 | 95 | 88 | 92 | 92 |
| | 동 남 아 | 93 | 89 | 96 | 81 | 93 | 81 |
| | 중 남 미 | 100 | 90 | 104 | 75 | 107 | 85 |
| | 중 동 | 79 | 100 | 93 | 95 | 93 | 95 |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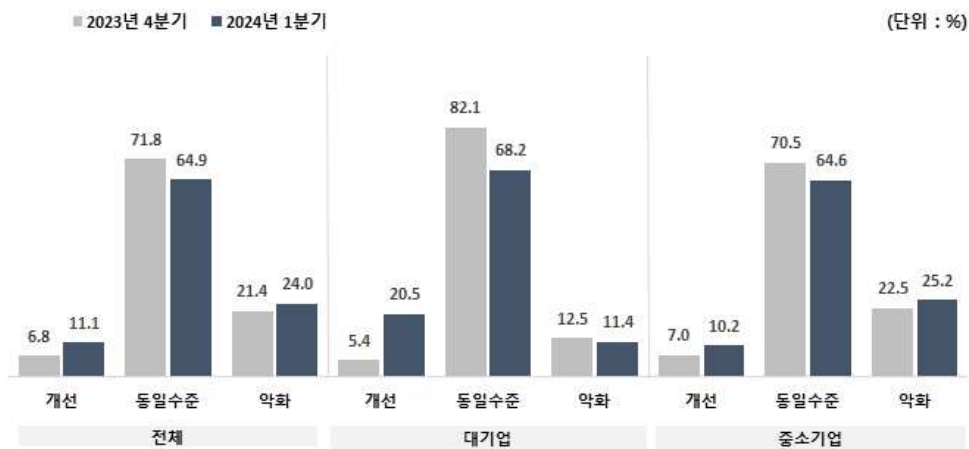
3. 수출기업 업황 평가 분석

가. 수출업황 평가 분포 현황 (응답 기업 513개사)

수출업황 '개선'은 4.3%p 증가한 11.1%, '악화'는 2.6%p 증가한 24.0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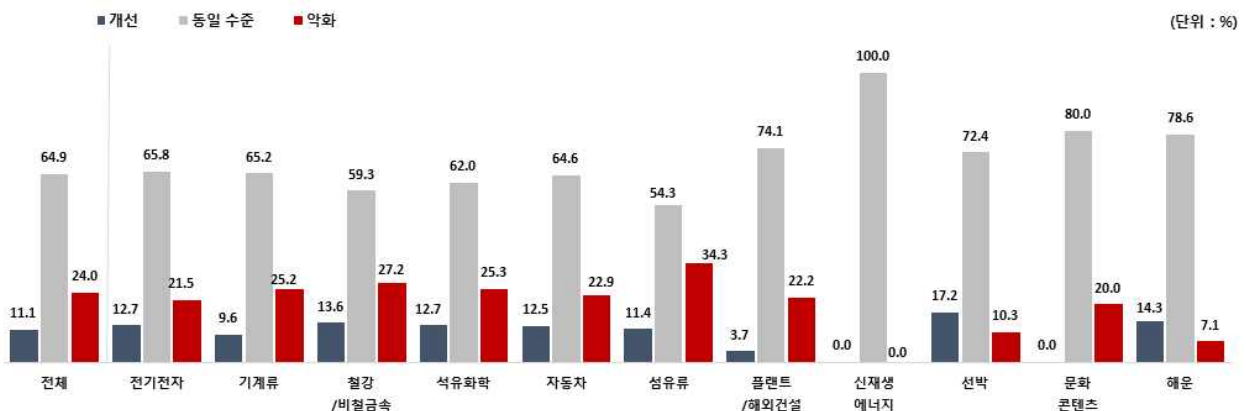
- 전기 대비 '개선' 응답은 4.3%p 증가한 11.1%, '악화' 응답은 2.6%p 증가한 24.0%로 두 응답률 모두 전기보다 증가했으나 '악화' 응답이 '개선' 응답 보다 높음.
- (규모별) 전기 대비 '개선' 응답은 각각 대기업 15.1%p, 중소기업 3.2%p 증가해 대기업의 '개선' 평가가 더 크게 증가, '악화' 응답은 대기업은 14.0%p 감소, 중소기업은 2.7%p 증가

1분기 수출업황 평가 : 기업규모별



- (산업별) '개선' 응답이 높은 산업은 선박(3.4%→17.2%), 해운(6.3%→14.3%), 철강(10.8%→13.6%), 전기전자(10.5%→12.7%), 석유화학(6.7%→12.7%) 순, '악화' 응답이 높은 산업은 섬유류(36.1%→34.3%), 철강(28.4%→27.2%), 석유화학(22.7%→25.3%), 기계류(20.4%→25.2%) 순

1분기 수출업황 평가 : 산업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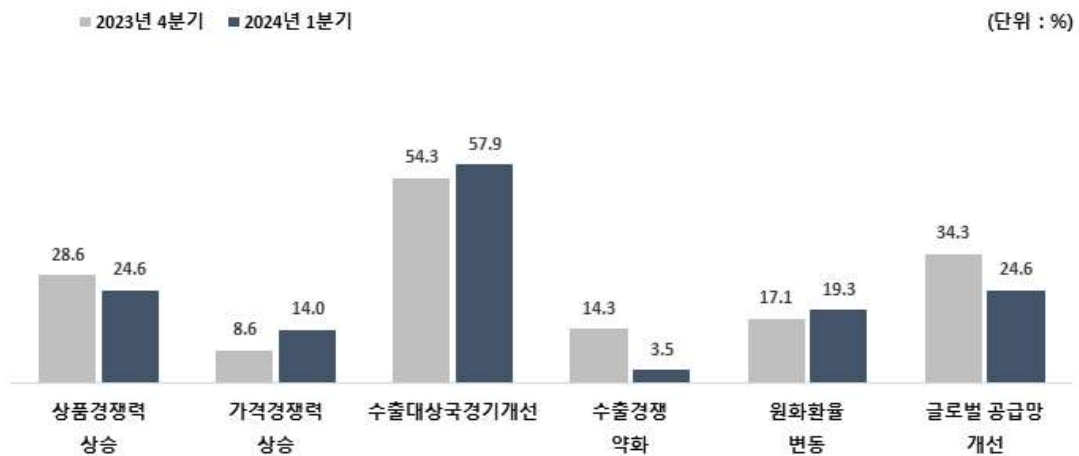


나. 수출업황 '개선' 원인 (전체 설문 기업 513개사 중 '개선' 응답 기업 57개사, 복수응답)

'수출대상국 경기개선'(57.9%), '글로벌 공급망 개선' · '상품경쟁력 상승'(24.6%) 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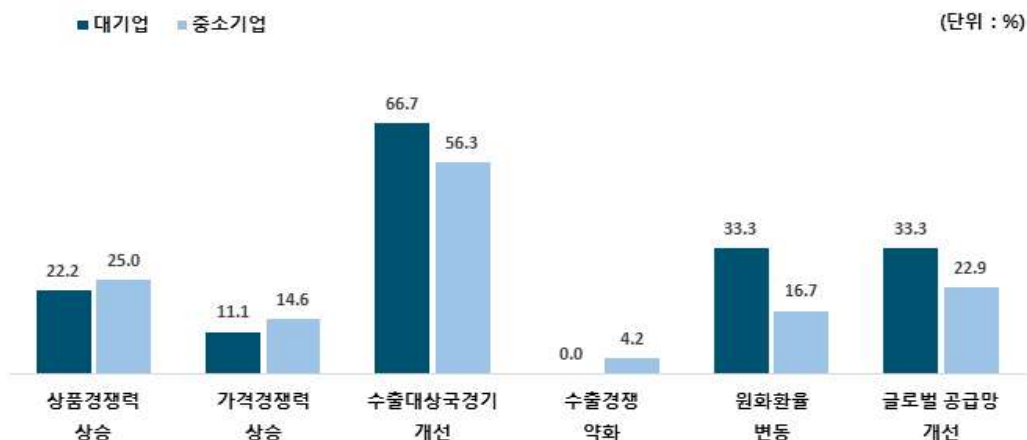
- '수출대상국 경기개선'(54.3%→57.9%)이 전기보다 증가하며 최대 비중 차지, '글로벌 공급망 개선'(34.3%→24.6%)과 '상품경쟁력 상승'(28.6%→24.6%)이 동률로 두 번째 비중 차지
- '수출대상국 경기개선'은 수출지역이 중국(100%), 중남미(100%), 북미(70.4%), 중동(66.7%)인 기업에서 응답 비중이 높음.

1분기 수출업황 '개선' 원인 : 전체



- (규모별)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'수출대상국 경기개선'을 각각 66.7%, 56.3%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, 대기업은 '글로벌 공급망 개선' · '원화환율 변동'(33.3%)을 다음으로 높게 응답, 중소기업은 '상품경쟁력 상승'(25.0%)과 '글로벌 공급망 개선'(22.9%) 순으로 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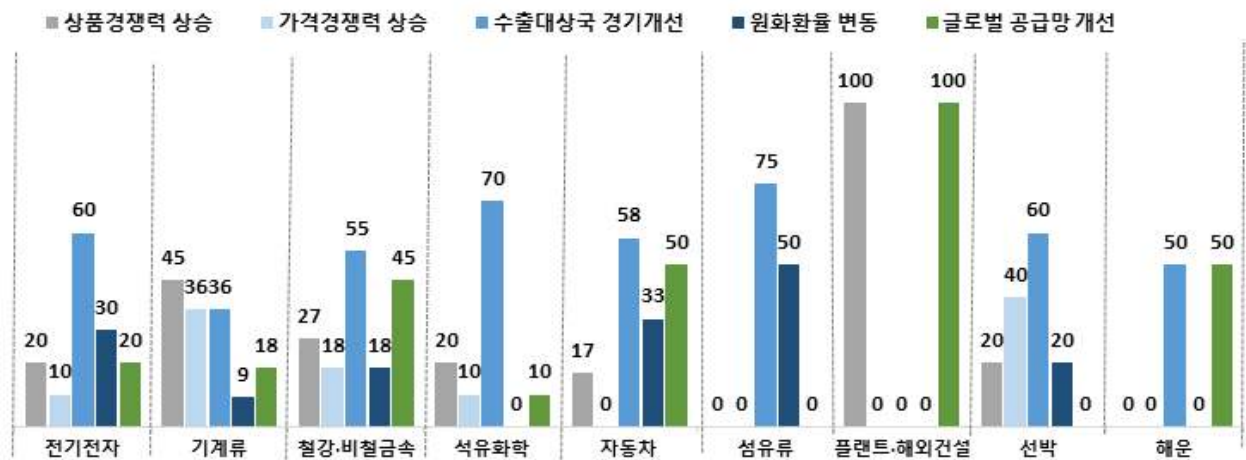
1분기 수출업황 '개선' 원인 : 기업 규모별





- (산업별) 석유류(75%), 석유화학(70%), 전기전자(60%), 선박(60%), 자동차(58%) 등이 '수출대상국 경기개선'을 업황 개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응답
- '글로벌 공급망 개선'은 플랜트/해외건설(100%), 자동차(50%), 해운(50%) 등에서 응답 비중이 높음.
- '상품경쟁력 상승'은 플랜트/해외건설(100%), 기계류(45.5%)에서, '원화환율 변동'은 석유류(50%), 자동차(33%), 전기전자(30%) 등에서 높게 응답

1분기 수출업황 '개선' 원인 : 산업별





기업규모별 · 산업별 · 지역별 수출업황 '개선' 원인

(단위 : %)

| 구분 | | 상품경쟁력 상 | 가격경쟁력 상 | 수출대상국 경 기 개 선 | 수 출 경 쟁 화 약 | 원 화 환 율 동 변 | 글로벌 공 개 | 로 급 별 망 선 |
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전 체 | | 24.6 | 14.0 | 57.9 | 3.5 | 19.3 | 24.6 | |
| 규모 | 대 기 업 | 22.2 | 11.1 | 66.7 | 0.0 | 33.3 | 33.3 | |
| | 중 소 기 업 | 25.0 | 14.6 | 56.3 | 4.2 | 16.7 | 22.9 | |
| 산업 | 전 기 전 자 | 20.0 | 10.0 | 60.0 | 0.0 | 30.0 | 20.0 | |
| | 기 계 류 | 45.5 | 36.4 | 36.4 | 0.0 | 9.1 | 18.2 | |
| | 철 강 / 비 철 | 27.3 | 18.2 | 54.5 | 0.0 | 18.2 | 45.5 | |
| | 석 유 화 학 | 20.0 | 10.0 | 70.0 | 10.0 | 0.0 | 10.0 | |
| | 자 동 차 | 16.7 | 0.0 | 58.3 | 8.3 | 33.3 | 50.0 | |
| | 섬 유 류 | 0.0 | 0.0 | 75.0 | 0.0 | 50.0 | 0.0 | |
| | 플랜트/해건 | 100.0 | 0.0 | 0.0 | 0.0 | 0.0 | 100.0 | |
| | 선 박 | 20.0 | 40.0 | 60.0 | 0.0 | 20.0 | 0.0 | |
| | 해 운 | 0.0 | 0.0 | 50.0 | 0.0 | 0.0 | 50.0 | |
| | | | | | | | | |
| 수출 지역 | 북 미 | 14.8 | 3.7 | 70.4 | 3.7 | 18.5 | 37.0 | |
| | 중 국 | 14.3 | 0.0 | 100.0 | 14.3 | 0.0 | 0.0 | |
| | 일 본 | 50.0 | 50.0 | 16.7 | 0.0 | 16.7 | 16.7 | |
| | 유 로 존 | 40.0 | 40.0 | 0.0 | 0.0 | 40.0 | 60.0 | |
| | 동 남 아 | 37.5 | 12.5 | 37.5 | 0.0 | 37.5 | 0.0 | |
| | 중 남 미 | 0.0 | 0.0 | 100.0 | 0.0 | 0.0 | 0.0 | |
| | 중 동 | 33.3 | 33.3 | 66.7 | 0.0 | 0.0 | 0.0 | |

주 : 전체 설문 513개사 중 '개선' 응답 기업 57개사 <복수응답: 1순위+2순위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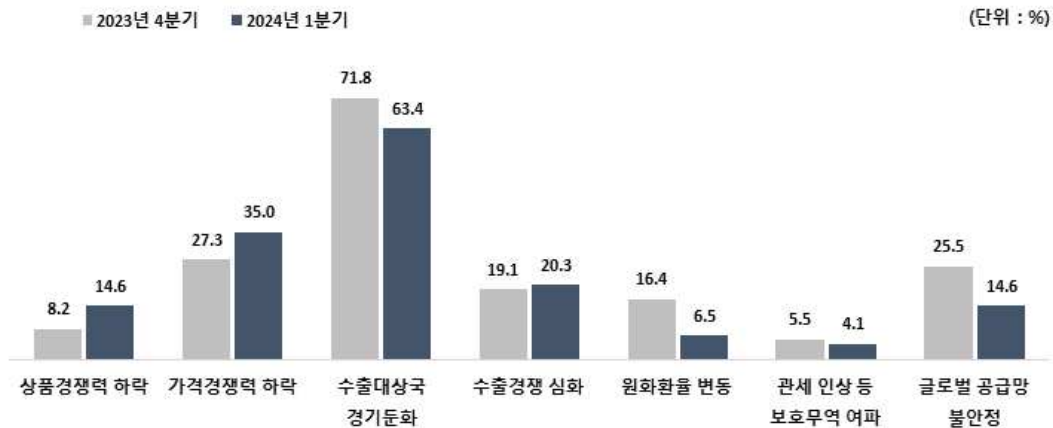


다. 수출업황 '악화' 원인 (전체 설문 513개사 중 '악화' 응답 기업 123개사, 복수응답)

'수출대상국 경기둔화'(63.4%), '가격 경쟁력 하락'(35.0%) 순

- '수출대상국 경기둔화'(71.8%→63.4%)가 전기에 비해 **8.4%p** 하락했지만 응답률은 가장 높았으며, '가격 경쟁력 하락(27.3%→35.0%)'는 전기보다 **7.7%p** 상승하며 두 번째로 많이 응답
- '수출대상국 경기둔화'는 주요 수출대상국이 **일본(61.5%→80.0%)**, **북미(74.3%→70.0%)** 인 기업에서 많이 응답, **중국(85.7%→64.0%)**, **유로존(91.7%→68.8%)**은 응답 비중이 크게 감소

1분기 수출업황 '악화' 원인 : 전체



- (규모별) 대기업(60.0%)과 중소기업(63.6%) 모두 '수출대상국 경기둔화' 응답이 가장 높은 가운데, 대기업은 '가격경쟁력 하락' · '수출 경쟁 심화'(40%)을 그 다음으로 응답
- 중소기업은 두번째로 '가격경쟁력 하락'(34.7%)을, 세 번째로 '수출경쟁 심화'(19.5%) 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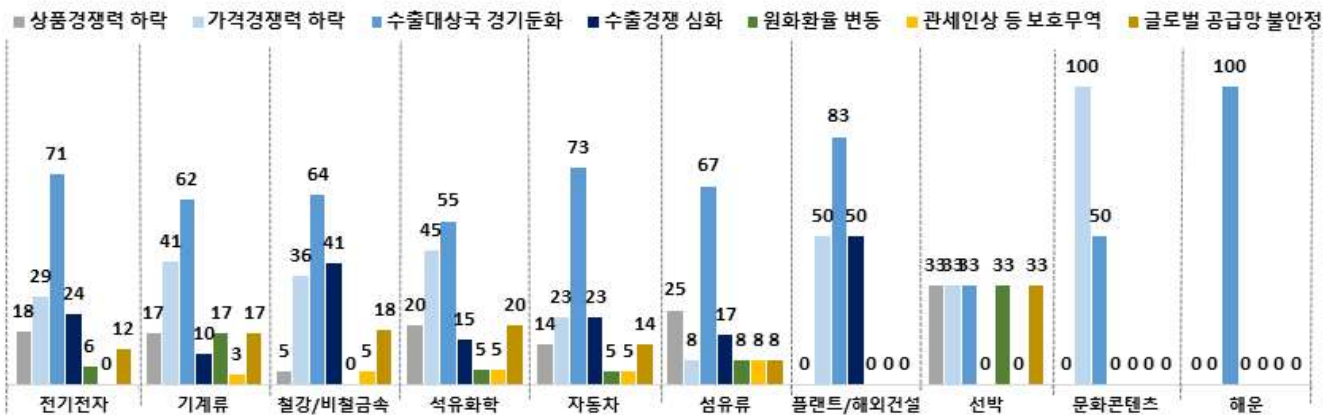
1분기 수출업황 '악화' 원인 : 기업규모별





- (산업별) '수출대상국 경기둔화'는 해운(100%), 플랜트/해외건설(83%), 자동차(73%), 전기전자(71%), 철강/비철금속(64%), 기계류(62%) 산업에서 많이 응답
- '가격 경쟁력 하락'은 문화콘텐츠(100%), 플랜트/해외건설(50%), 석유화학(45%), 기계류(41%), 등에서 많이 응답
- '수출경쟁 심화'는 플랜트/해외건설(50%), 철강/비철금속(41%), 전기전자(24%) 등에서 높게 응답

1분기 수출업황 '악화' 원인 : 산업별





기업규모별 · 산업별 · 지역별 수출업황 '악화' 원인

(단위 : %)

| 구분 | | 상 경 하 | 품 쟁 력 락 | 가 경 하 | 격 쟁 력 락 | 수 대 상 경 기 둔 화 | 출 국 경 심 | 수 경 심 | 출 쟁 화 | 원 환 변 | 화 율 동 | 관세인상 등 보호무역 | 글로벌 공급 불안 정 |
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전 체 | | 14.6 | | 35.0 | | 63.4 | | 20.3 | | 6.5 | | 4.1 | 14.6 |
| 규 모 | 대 기 업 | 0.0 | | 40.0 | | 60.0 | | 40.0 | | 20.0 | | 0.0 | 20.0 |
| | 중 소 기 업 | 15.3 | | 34.7 | | 63.6 | | 19.5 | | 5.9 | | 4.2 | 14.4 |
| 산 업 | 전 기 전 자 | 17.6 | | 29.4 | | 70.6 | | 23.5 | | 5.9 | | 0.0 | 11.8 |
| | 기 계 류 | 17.2 | | 41.4 | | 62.1 | | 10.3 | | 17.2 | | 3.4 | 17.2 |
| | 철 강 / 비 철 | 4.5 | | 36.4 | | 63.6 | | 40.9 | | 0.0 | | 4.5 | 18.2 |
| | 석 유 화 학 | 20.0 | | 45.0 | | 55.0 | | 15.0 | | 5.0 | | 5.0 | 20.0 |
| | 자 동 차 | 13.6 | | 22.7 | | 72.7 | | 22.7 | | 4.5 | | 4.5 | 13.6 |
| | 섬 유 류 | 25.0 | | 8.3 | | 66.7 | | 16.7 | | 8.3 | | 8.3 | 8.3 |
| | 플랜트/해외건설 | 0.0 | | 50.0 | | 83.3 | | 50.0 | | 0.0 | | 0.0 | 0.0 |
| | 신재생에너지 | 0.0 | | 0.0 | | 0.0 | | 0.0 | | 0.0 | | 0.0 | 0.0 |
| | 선 박 | 33.3 | | 33.3 | | 33.3 | | 0.0 | | 33.3 | | 0.0 | 33.3 |
| | 문 화 콘 텐 츠 | 0.0 | | 100.0 | | 50.0 | | 0.0 | | 0.0 | | 0.0 | 0.0 |
| | 해 운 | 0.0 | | 0.0 | | 100.0 | | 0.0 | | 0.0 | | 0.0 | 0.0 |
| 수출 지역 | 북 미 | 13.5 | | 32.4 | | 70.3 | | 24.3 | | 8.1 | | 2.7 | 16.2 |
| | 중 국 | 12.0 | | 40.0 | | 64.0 | | 16.0 | | 0.0 | | 12.0 | 12.0 |
| | 일 본 | 0.0 | | 0.0 | | 80.0 | | 20.0 | | 30.0 | | 0.0 | 30.0 |
| | 유 로 존 | 12.5 | | 25.0 | | 68.8 | | 18.8 | | 0.0 | | 0.0 | 6.3 |
| | 동 남 아 | 25.0 | | 41.7 | | 50.0 | | 25.0 | | 8.3 | | 4.2 | 12.5 |
| | 중 남 미 | 33.3 | | 33.3 | | 66.7 | | 0.0 | | 0.0 | | 0.0 | 33.3 |
| | 중 동 | 33.3 | | 66.7 | | 33.3 | | 0.0 | | 0.0 | | 0.0 | 33.3 |

주 : 전체 설문 513개사 중 '악화' 응답 기업 123개사 <복수응답: 1순위+2순위>

II. 2024년 2분기 수출 전망

1. 수출선행지수 추이

2분기 수출선행지수는 전년동기 대비 1.4p, 전기대비 1.7p 하락

- '24년 2분기 수출선행지수는 120.9로 전년동기 대비 1.4p, 전기 대비 1.7p 하락
- '23년 4분기 상승 전환했던 수출선행지수가 다시 2분기 연속 전기대비 하락하는 등 수출 경기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
- 미국 경기는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·유럽 등은 개선세가 강하지 않고, 중동 리스크 등 지정학적 불안까지 고조되면서 지역별 경기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
- 수출선행지수 구성 지표인 수출 대상국 경기, 제조업 신규주문은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으나, 기계 수주액, 수출용 수입액 등은 하락하는 등 지표들의 향방도 엇갈리고 있음.

수출 선행지수 추이

| 구분 | 2022 | | | | 2023 | | | | 2024 | |
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|
| | 1/4 | 2/4 | 3/4 | 4/4 | 1/4 | 2/4 | 3/4 | 4/4 | 1/4 | 2/4 |
| 수출선행지수 | 124.3 | 126.3 | 129.1 | 128.8 | 123.8 | 122.3 | 122.5 | 123.8 | 122.6 | 120.9 |
| 전년동기대비 증감(p) | 16.91 | 14.79 | 10.78 | 5.75 | △0.46 | △3.90 | △6.55 | △4.98 | △1.15 | △1.40 |
| 전기대비 증감(p) | 1.26 | 1.99 | 2.85 | △0.34 | △4.96 | △1.45 | 0.20 | 1.24 | △1.14 | △1.70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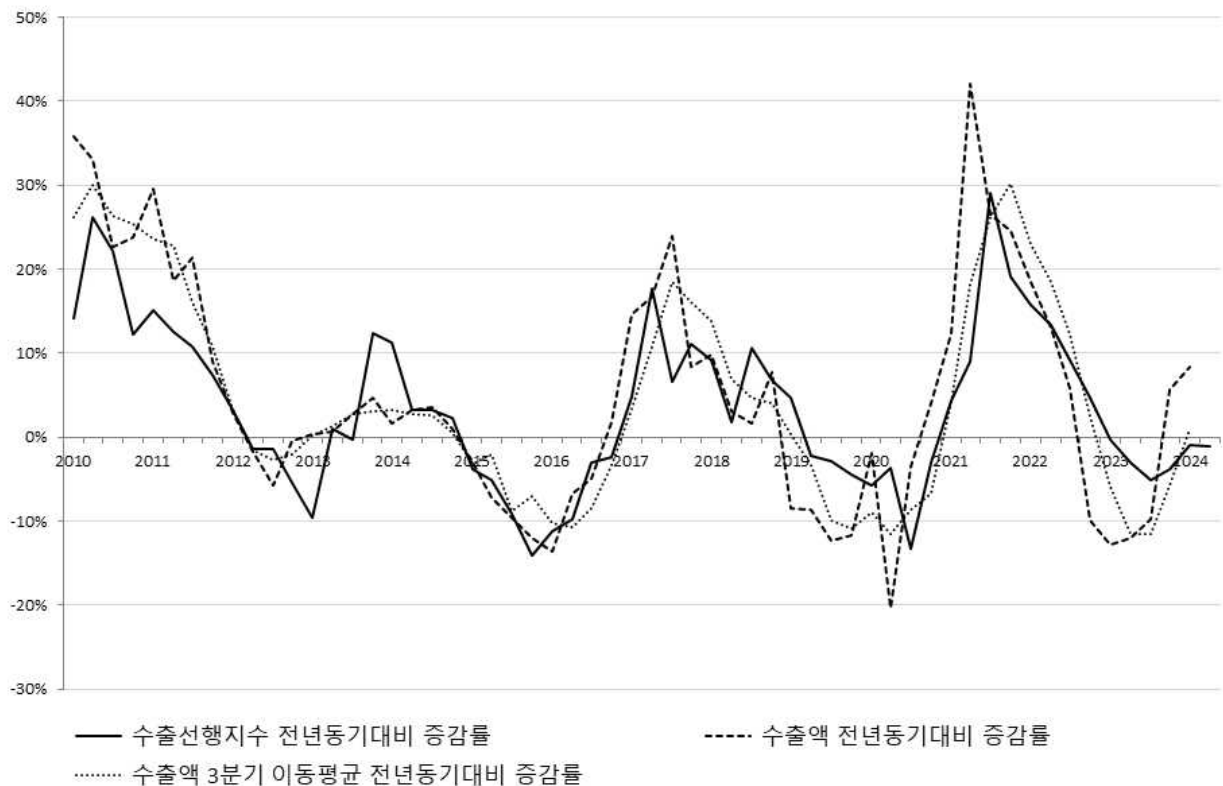
주 : 수출선행지수는 신규 수치 산출시 과거 선행지수 수치도 함께 변경



수출선행지수 및 수출액지수 추이



수출선행지수 및 수출액 전년동기 대비 증감률 추이





미국은 개선세 지속·중국은 약한 회복세, 불확실성 증대로 전기 대비 상승세는 약화

- 수출대상국 경기 : 독일·일본은 경기둔화, 미국·영국은 개선세 지속, 중국은 미약한 회복 흐름을 유지하는 등 지역별 경기 차별화 심화, 전체 경기지수는 상승세가 약화돼 전기 대비 상승폭 축소

※ 수출대상국 경기지수 증감률(% , 전년동기대비) : 3.4('23.2Q)→4.3(3Q)→4.5(4Q)→**3.4('24.1Q)**

- WTO 상품무역지수 : 전분기와 유사한 100.6 기록, 기준선(100)을 상회해 무역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지역갈등, 지정학적 긴장 등 하방리스크가 상존해 회복세가 강하지는 않은 상황

※ Goods Trade Barometer*(WTO) : 92.2('23.1Q)→95.6(2Q)→99.1(3Q)→100.7(4Q)→**100.6('24.1Q)**

* 2022년 6월=100을 기준으로 상회하면 무역 확장세, 하회하면 감소세

-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*는 전분기 대비 8.7% 상승한 51.0 기록, 월별로도 기준치 50을 상회해 미국 제조업 경기는 확장 국면을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

* 미국 공급자관리협회(ISM)에서 매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신규주문, 생산, 고용, 재고 등 설문을 실시해 발표하는 지수로, 우리나라 수출액에 대해 3~6개월 선행성을 나타냄.

※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(분기) : 44.60('23.1Q)→44.63(2Q)→47.8(3Q)→47.0(4Q)→**51.0('24.1Q)**

※ 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(월) : 45.5('23.10)→48.3(11)→47.1(12)→**52.5('24.1)→49.2(2)→51.4(3)**

수출대상국 경기지수



주 : OECD 선행지수 활용, 성장률 반영 (2020=100)

ISM 제조업 신규주문지수



자료 : 미국 공급자관리협회(ISM)

- 수출용 수입액 지수는 수출 물량은 개선됐으나 1분기 유가가 안정적이었던 영향으로 전기 대비 7.5%, 전년동기 대비 14.8% 하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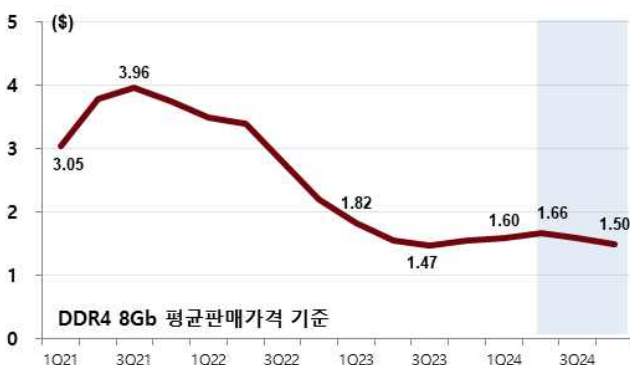
※ 수출용 수입액지수(분기, 2020=100): 175.6('23.1Q)→158.4(2Q)→148.5(3Q)→161.7(4Q)→**149.6('24.1Q)**

※ 수출용 수입액지수 증감률(% , 전년동기 대비): △3.4('23.1Q)→△20.4(2Q)→△27.9(3Q)→△7.6(4Q)→**△14.8('24.1Q)**



- 가격 경쟁력** : 1분기 평균 환율은 전 분기(1,321원)보다 **0.5% 상승**한 달러당 **1,328원** 기록했으나 4월에는 중동발 분쟁 영향으로 장중 1,400원까지 상승, 가격 경쟁력은 높은 상황이나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 압력도 높아짐.
 - 미국 경기 호조로 금리인하 기대감이 떨어지고 이란-이스라엘 분쟁 등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화 선호가 높아져 원/달러 환율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
 - ※ 원/달러환율(분기평균) : 1,276('23.1Q)→1,315(2Q)→1,311(3Q)→1,321(4Q)→**1,328('24.1Q)**
 - ※ 원/달러환율(월 평균) : 1,351('23.10)→ 1,310(11)→ 1,304(12)→**1,324('24.1)→ 1,332(2)→ 1,331(3)**
- 수출물가** : 반도체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, 유가도 점진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2분기 수출물가는 전년동기 대비 상승세로 전환될 전망
 - ※ 수출물가 (2015=100, 달러기준) : 102.8('23.1Q)→99.6(2Q)→100.6(3Q)→100.2(4Q)→**102.1('24.1Q)**
 - ※ 수출물가 상승률(% 전년동기 대비, 달러기준) : △8.7('23.1Q)→△15.0(2Q)→△8.0(3Q)→△3.6(4Q)→**△0.7('24.1Q)**
- D램**은 AI 확산 등으로 수요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, 전세계 D램 반도체의 15%를 공급하는 대만의 지진 사태로 공급 감소 가능성도 있어 가격 상승 폭은 확대될 전망
 - ※ D램 가격 전망(\$, DDR4_8Gb 평균판매가격, Omdia) : 1.47('23.3Q)→1.55(4Q)→1.60('24.1Q)→**1.66^P(2Q)**
- 유가**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, OPEC+ 석유 감산 연장 등으로 80달러 중후반대 유지 전망
 - ※ 유가(Dubai, \$/bl, 기간평균) : 89.8('23.10)→83.6(11)→77.3(12)→**78.9('24.1)→80.9(2)→84.2(3)→89.6(4.19)**

D램 가격 전망



자료 : Omdia (2024.3월)

유가 추이



자료 : Petronet (두바이유 기준, 배럴당 가격)

- 주요 산업** : 반도체는 AI 중심 투자 확대로 물량·단가 상승이 이어지고, 건조된 선박 물량 인도 본격화로 조선 수출 호조세도 이어지면서 주요 산업 수출 회복세는 지속될 전망
 - 반도체는 위축되었던 낸드플래시 시장이 AI 수요 증가에 힘입어 회복되고, HBM(고대역폭 메모리)



리), DDR5 등 고부가가치 D램 제품 수요도 증가하는 등 수출 단가, 물량 상승세가 이어져 수출 호조세는 2분기에도 지속될 전망

- 석유제품은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수출단가가 상승하면서 수출 증가폭 확대 전망

2024년 2분기 수출액, 전년동기 대비 8~9% 증가 전망

- 지역별 경기차별화로 수출선행지수는 소폭 하락했으나, 우리 수출 비중이 큰 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국제 유가 상승으로 수출단가 상승이 이어져 2024년 2분기 수출액은 전년동기 대비 8~9% 증가 전망
- 수출액은 1,700억 달러 내외 수준으로 전기 대비 증가
 - ※ 분기별 수출액 (억달러) : 1,512('23.1Q)→ **1,558(2Q)**→ 1,571(3Q)→ 1,682(4Q)→ 1,637('24.1Q)
 - ※ 분기별 수출액 증감율 (%) 전년동기대비) : △12.8('23.1Q)→ **△120(2Q)**→ △9.7(3Q)→ 5.8(4Q)→ 8.3('24.1Q)
- 다만, 중동발 리스크, 중국 경기 회복 부진 등이 지속되면서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글로벌 경기 위축이 확산될 경우 수출 증가 폭은 축소 가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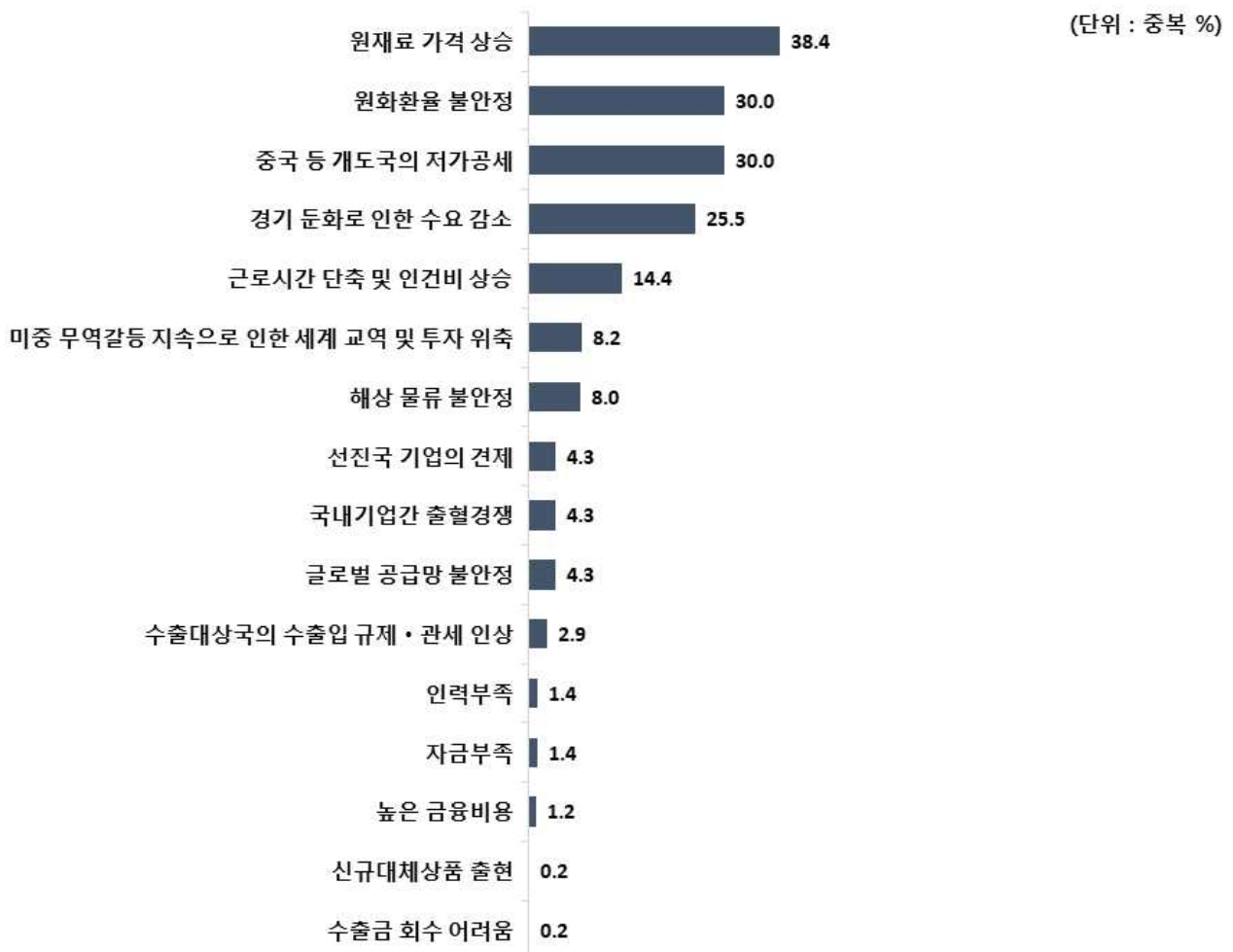
Ⅲ. 수출기업 애로사항

‘원재료 가격 상승’(38.4%), ‘원화환율 불안정’ · ‘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 공세’(30.0%) 응답 최대

- 최근 원유를 비롯해 리튬, 구리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‘원재료 가격 상승’(29.4%→38.4%)이 전기 대비 9.0%p 상승하며 최대 비중 차지
- 환율 변동성이 커지면서 ‘원화환율 불안정’(42.0%→30.0%) 응답도 여전히 높게 나타났으며, ‘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 공세’(30.9%→30.0%)도 전기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

‘24년 1분기 수출기업 주요 애로사항

(응답 기업 수 513, 1순위+2순위 복수응답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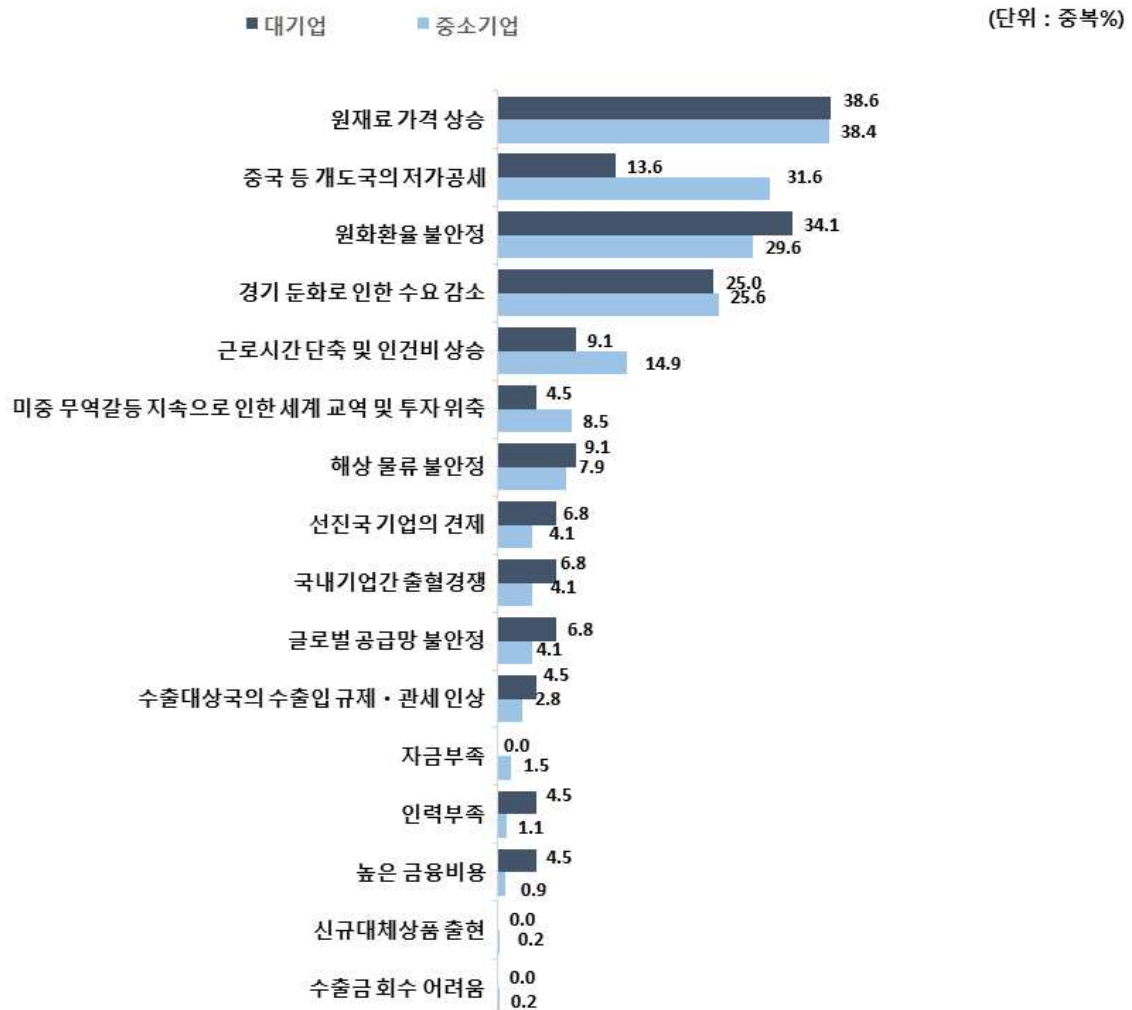
- (산업별) ‘원재료 가격 상승’은 신재생에너지(57.1%), 선박(48.3%), 철강/비철금속(43.2%), 석유화학(43.0%), 전기전자(39.2%), 기계류(37.4%) 등에서, ‘원화환율 불안정’은 신재생에너지(42.9%), 문화콘텐츠(40.0%), 석유화학(38.0%), 전기전자(34.2%) 등에서 높게 응답



- '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 공세'는 기계류(43.5%), 철강/비철금속(37.0%), 석유화학(30.4%) 등에서 높게 응답
- (규모별) 대기업(20.8%→38.6%)과 중소기업(7.6%→38.4%) 모두 '원재료 가격 상승' 응답률이 가장 높았으며, 특히 중소기업은 전기에 비해 응답률이 30.8%p 상승
- 다음으로 대기업은 '원화환율 불안정'(34.1%), 중소기업은 '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' (31.6%)를 응답
- 대기업은 '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' 응답률이 13.6%에 불과해 중소기업과 차이를 나타냄.

'24년 1분기 수출기업 주요 애로사항 : 기업규모별

(응답 기업 수 514, 1순위+2순위 복수응답)





기업규모별 · 산업별 · 지역별 수출 애로요인

(단위 : %)

| 구분 | | 원재료 가격 상승 | 원화 환율 불안정 | 중국 등 개도국의 저가공세 | 경기 둔화로 인한 수요감소 | 근로시간 단축 및 인건비 상승 | 미중 무역갈등 으로 인한 교역위축 | 해상물류 불안정 |
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전 체 | | 38.4 | 30.0 | 30.0 | 25.5 | 14.4 | 8.2 | 8.0 |
| 규 모 | 대 기 업 | 38.6 | 34.1 | 13.6 | 25.0 | 9.1 | 4.5 | 9.1 |
| | 중 소 기 업 | 38.4 | 29.6 | 31.6 | 25.6 | 14.9 | 8.5 | 7.9 |
| 산 업 | 전 기 전 자 | 39.2 | 34.2 | 25.3 | 25.3 | 13.9 | 11.4 | 6.3 |
| | 기 계 류 | 37.4 | 27.0 | 43.5 | 19.1 | 14.8 | 11.3 | 7.0 |
| | 철 강 / 비 철 | 43.2 | 33.3 | 37.0 | 28.4 | 8.6 | 9.9 | 8.6 |
| | 석 유 화 학 | 43.0 | 38.0 | 30.4 | 25.3 | 7.6 | 6.3 | 8.9 |
| | 자 동 차 | 32.3 | 32.3 | 25.0 | 26.0 | 18.8 | 8.3 | 10.4 |
| | 섬 유 류 | 25.7 | 22.9 | 25.7 | 34.3 | 11.4 | 11.4 | 8.6 |
| | 플랜트/해건 | 29.6 | 33.3 | 22.2 | 14.8 | 11.1 | 7.4 | 0.0 |
| | 신재생에너지 | 57.1 | 42.9 | 28.6 | 28.6 | 21.4 | 0.0 | 0.0 |
| | 선 박 | 48.3 | 31.0 | 27.6 | 34.5 | 17.2 | 6.9 | 3.4 |
| | 문 화 콘 텐 츠 | 20.0 | 40.0 | 10.0 | 40.0 | 40.0 | 10.0 | 0.0 |
| | 해 운 | 35.7 | 14.3 | 0.0 | 35.7 | 14.3 | 0.0 | 14.3 |
| 수출 지역 | 북 미 | 41.5 | 27.7 | 28.9 | 22.6 | 15.1 | 10.1 | 8.8 |
| | 중 국 | 42.7 | 32.6 | 33.7 | 27.0 | 6.7 | 13.5 | 3.4 |
| | 일 본 | 34.5 | 41.8 | 25.5 | 23.6 | 14.5 | 7.3 | 0.0 |
| | 유 로 존 | 29.9 | 23.9 | 32.8 | 23.9 | 17.9 | 7.5 | 11.9 |
| | 동 남 아 | 41.9 | 31.4 | 31.4 | 27.6 | 18.1 | 3.8 | 9.5 |
| | 중 남 미 | 30.0 | 30.0 | 20.0 | 40.0 | 10.0 | 0.0 | 20.0 |
| | 중 동 | 40.0 | 20.0 | 30.0 | 30.0 | 10.0 | 0.0 | 20.0 |

주 : 총 513개사 <복수응답: 1순위+2순위>



<부록> 수출기업 업황 설문조사 및 지수 개요

1. 설문조사 개요

조사 목적

- 기업이 수출현장에서 느끼는 종합적인 수출여건을 기업별, 업종별로 조사하여, 기업경영 계획과 정부의 무역 지원 시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

조사 기간 및 방법

- 조사 대상 기간
 - 업황 평가 : 조사 직전 분기
 - 실적 전망 : 조사 해당 분기
- 조사 실시 기간 : 2024년 4월 1일~5일
- 모집단 및 표본
 - 모집단 : 12개 주요산업 중 수출액 50만 달러 이상 수출기업
 - 표본크기 : 대·중소기업 513개 업체 (대기업 44개, 중소기업 469개)
- 조사 방법 : 전화 및 이메일

2. 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 및 개요

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산출 방식

- 기업들이 해당 분기 조사 항목에 대해 매우 개선(증가·상승), 개선(증가·상승), 비슷, 악화(감소·하락), 매우 악화(감소·하락) 등 5단계 중 자신의 평가를 선택하도록 설문조사 수행
-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황 개선 기업 수가 악화 기업 수보다 많으면 100보다 높게, 그 반대의 경우에는 100보다 낮도록 지수화
- 지수 산출 방식 :

$$\frac{(\text{매우개선} \times 1.0 + \text{약간개선} \times 0.5 + 0 \times \text{동일} - \text{약간악화} \times 0.5 - \text{매우악화} \times 1.0)}{\text{전체 응답자수}} \times 100 + 100$$



수출기업 업황 평가지수 조사 내용

| 구 | 분 | 내 | 용 |
|---|---|---|---|
| 수 | 출 | 업 | 황 |
| 평 | 가 | 지 | 수 |
| 수 | 출 | 채 | 산 |
| 성 | 평 | 가 | 지 |
| 수 | 출 | 단 | 가 |
| 평 | 가 | 지 | 수 |
| 생 | 산 | 원 | 가 |
| 평 | 가 | 지 | 수 |
| 수 | 출 | 물 | 량 |
| 평 | 가 | 지 | 수 |
| 자 | 금 | 사 | 정 |
| 평 | 가 | 지 | 수 |

3. 수출선행지수 추정 모형 및 구성요소

수출선행지수 추정 모형

- 수출선행지수는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, 산업별 수주 현황, 환율 등 우리나라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종합해 수출 증감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든 지수
- 2020년=100 기준으로 산출 (2023년 4월 수정)
- 2023년 1월부터 OECD 경기선행지수가 OECD 국가 전체에서 G7 및 호주, 멕시코, 튀르키예, 브라질, 중국, 인도, 인도네시아, 남아공화국 등 주요국 중심으로 발표됨에 따라 변수 변화에 맞춰 추정 모형도 소폭 수정됨.

지수 모형 구성 내용

| 구 | 분 | 변 | 수 |
|----|-------|----|---|
| 주요 | 수출대상국 | 경기 | |
| 수출 | 가격 | 변수 | |
| 산업 | 별 | 현황 | |